

길장의 4중이제설은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가?^{*}

조윤경

국립안동대 조교수

ipipi33@gmail.com

I. 머리말

II. 4중이제설과 『대승현론』

III.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 - 『중관론소』를 중심으로

IV. 4중이제설과 이치의 관계 - 『십이문론소』를 중심으로

V. 맺음말

요약문

4중이제설은 길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그동안 길장의 친작이 아닌 『대승현론』의 4중이제설 해석을 근거로 하여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 나타난 길장의 4중이제설의 이론 구조와 사상에 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대승현론』의 시각을 배제할 것이다.

4중이제설과 관련하여 여러 오해 가운데 하나는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제4중 진제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므로 다음 단계의 이제에 의해서 부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한소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에 본 논문은 4중이제설이 무한히 펼쳐지는 열린 구조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585).

기실, 4중이제설은 제3중 이제 위에 앞의 세 단계와 동일한 차원의 가르침을 한 층 더 반복하여 쌓아 올린 이제설이 아니라, 교문(敎門)과 다른 이치를 제4중 이제의 진제로 포섭한 이론이다. 따라서 마지막 층위의 이제는 앞의 제1중 이제부터 제3중 이제에서 보이는 점진적인 단계성을 완전히 초월한 궁극적 깨달음을 직설(直說)한다. 여러 학자들이 제4중 이제에 ‘무한성’의 개념을 적용한 까닭은 전통적인 3중이제설이 무한히 펼쳐지는 열린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승현론』 편찬자의 시각도 무한부정으로 해석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길장의 『중관론소』와 『십이문론소』를 살펴보면, 4중이제설은 닫힌 구조임이 분명하다. 그는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를 통해 전통적인 3중이제설의 ‘점진적 단계’가 상위 단계의 ‘부정’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오해를 종식시켰다. 길장은 ‘모든 가르침이 이치와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삼론종의 핵심 사상을 구현해서, 어떤 단계의 이제도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는 무한소급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제어

4중 이제(四重二諦), 길장(吉藏), 무한소급, 가르침(敎), 이치(理), 『대승현론(大乘玄論)』, 『중관론소(中觀論疏)』,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I. 머리말

삼론종의 이제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학설은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과 같은 중층적 이제설이며, 이러한 학설들은 삼론학을 대표하는 만큼 관련한 선행 연구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길장의 4중이제설을 다시 검토하고, 그 가운데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길장의 이제설에 관해 여러 선행 연구가 축적되면서, 길장의 이제 사상은 중국불교의 이제설을 대표하는 사상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의 토대가 되는 문헌 가운데는 길장의 친작이 아닌데 길장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 『대승현론』과 같은 텍스트가 있었다. 특히, 최근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승현론』의 편찬자는 이제, 불성 등 여러 분야에서

길장이 직접 찬술한 저작에 나타난 해석과 매우 다른 이해를 보인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승현론』의 텍스트에 주로 근거해서 구축되었던 삼론종 사상에 대한 통설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길장의 4중이제설에 관한 기존 이해라고 할 수 있다.

4중이제설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3중이제설에 마지막 한 층위의 이제를 덧붙여서 만들어진 이제설이다. 4중이제설은 『중관론소』, 『십이문론소』 그리고 『대승현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4중 이제에 대한 『대승현론』의 해석은 표층적으로는 간명하게 핵심을 짚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여러 각도에서 길장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승현론』의 시각을 제외하고 4중이제설의 이론 구조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중이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 가운데, 4중이제설을 무한히 펼쳐지는 열린 구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4중이제설의 마지막에 위치한 제4중 진제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따라서 비록 길장 본인은 제4중 이제까지만 제시했지만 4중이제설은 이론상 제5중 이제, 제6중 이제 등으로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4중이제설이 무한소급이 불가능한 닫힌 구조임을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는 이제의 가르침이 이치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는 길장의 사상이 투영된 것임을 논의할 것이다.

II. 4중이제설과 『대승현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길장의 4중이제설의 구조를 다루기에 앞서 우선 관련 텍스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4중이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텍스트는 『대승현론』의 다음 구절이다.

문: 무슨 까닭으로 이 4중 이제를 만들었는가?

답: 비담종의 사리 이제(事理二諦)를 대치하여, 첫째 층위의 공유 이제(空有二諦)를 밝혔다.

둘째,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를 대치하여, 너희의 공유 이제는 나의 속제이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이야말로 진제이므로, 둘째 층위의 이제가 있다.

셋째, 대승사의 의타(依他)와 분별(分別)의 둘은 속제이고, 의타는 무생(無生)이고 분별은 무상(無相)이니 둘이 아닌[不二] 진실성(眞實性)이 진제라는 주장을 대치하여, 지금 둘[二]이거나 둘이 아님[不二]은 모두 삼론종의 속제이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야말로 진제이므로, 셋째 층위의 이제가 있다.

넷째, 대승사가 다시 삼성(三性)은 속제이고, 안립제(安立諦)가 진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의타, 분별의 둘과 진실의 둘이 아님이라는 안립제, 그리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닌 삼무성(三無性)의 비안립제(非安立諦)는 모두 삼론종의 속제이고, 언망려절(言忘慮絕)이야말로 진제다.¹⁾

전통적으로 『대승현론』이 차지했던 위상과는 별개로, 『대승현론』은 길장의 저술로 가락된 후대의 편집물로서 길장의 사상을 상당 부분 왜곡하고 있다.²⁾ 『대승현론』이 길장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관해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를 보이던 중국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성과가 나오는 등 학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³⁾ 앞으로 『대승현론』 문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더

1) 『大乘玄論』(T45, 1:15c13-23), “問: 何故作此四重二諦耶? 答: 對毘曇事理二諦, 明第一重空有二諦. 二者, 對成論師空有二諦, 汝空有二諦是我俗諦, 非空非有方是真諦. 故有第二重二諦也. 三者, 對大乘師依他分別二爲俗諦, 依他無生, 分別無相, 不二眞實性爲眞諦. 今明若二若不二, 皆是我家俗諦, 非二非不二, 方是真諦. 故有第三重二諦. 四者, 大乘師復言三性是俗, 安立諦爲眞諦. 故今明汝依他分別二’ 眞實不二’ 是安立諦, 非二非不二, 三無性非安立諦, 皆是我俗諦; 言忘慮絕方是真諦.” 이 원문은 다음 논문에서 인용할 당시 원문의 글자가 누락되면서 관련 우리말 번역도 오역이 되었다. 지금 누락된 글자를 삽입하고 번역도 정정한다. 조윤경 2022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조윤경 2014 참조.

3) 蔡曉菁 2021, 235-236. 『대승현론』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蔡曉菁의 논문은 앞으로 『대승현

육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위의 『대승현론』 구절 또한 길장의 4중이제설의 원형을 심각하게 변형시킨 부분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 『대승현론』은 길장의 4중이제설이 각각 비담사, 성실사, 대승사(지론사 및 섭론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 네 단계로 만들어진 이제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길장의 의도와 무관한 편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특히 섭론종의 이제를 삼론종의 제3중 이제에 대응시킨 것은, 길장이 타 문헌에서 섭론종의 이제가 2중 이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던 내용과 모순되며 당시 섭론종 자체의 이제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⁴⁾ 그러므로 『대승현론』의 저자의 해석에 근거해 여러 선행연구가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길장이 섭론종을 겨냥하여 제4중 이제를 발전시켰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승현론』 편찬자가 길장의 원래 사상을 왜곡한 4중이제설을 제시한 까닭은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것이 편찬자의 잘못된 이해가 실수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고의적으로 삽입된 해석이라는 것이다. 아직 『대승현론』의 저자가 단일 인물인지 복수의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구절이 편집된 방식을 살펴보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편집일 수밖에 없다. 『대승현론』은 위의 문답 앞에 나온 다른 두 문답을 포함한 광범위한 텍스트를 『중관론소』에서 몇 글자를 누락시키는 수준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심지어 이 문답의 질문인 ‘問: 何故作此四重二諦耶?’와 뒤의 ‘答’까지도 『중관론소』에서 그대로 베꼈는데,⁵⁾ 답변 내용만 원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대승현론』 편찬자는 『중관론소』의 답변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지만 질문

론』 관련 후속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蔡曉菁은 필자(조윤경)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용하면서 필자가 혜균이 『대승현론』의 저자라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필자는 단 한 번도 혜균이 『대승현론』의 저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필자는 『대승현론』 편찬자가 길장보다 후대 사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혜균은 길장의 동학으로서 길장과 동시대인이며 사상적으로도 길장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제목도 『敎門卽是眞理: 吉藏二諦思想研究』가 아닌 『敎門卽是理門: 吉藏二諦思想研究』임을 밝힌다.

4) 조윤경 2022, 29-31.

5) 조윤경 2014의 <표 2-3>에서 (1) 대의(大意) 부분 ④번에 해당한다. 조윤경 2014, 330.

만 남겨둔 채 답변을 선택적으로 교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 『대승현론』의 편찬자가 참조했으나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던 『중관론소』의 원래 텍스트는 무엇인가?

문: 무슨 까닭으로 이 4중 이제를 만들었는가?

답: 날카로운 근기는 첫 단계를 들으면 바로 정도(正道)를 깨달으니, 뒤의 두 단계는 필요 없다. 중근기는 첫 단계를 듣고는 깨닫지 못하지만, 두 번째 단계를 들으면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근기는 [앞의 두 단계를 거쳐]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러야, [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⁶⁾ ...

『중관론소』는 4중이제설이 각각 날카로운 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설명한다. 교화대상의 근기가 날카로울수록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고 근기가 낮을수록 여러 단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첫 단계의 이제를 들으면 바로 정도(正道)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근기를 가진 자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단박에 깨닫기는 어렵고 제2중 이제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반면, 하근기에 해당하는 자는 제3중 이제의 가르침까지 들어야 비로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곳에서 길장은 제4중 이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4중도 제3중과 같이 하근기를 위한 이제설로 간주할 수 있다.

길장이 위의 인용문에서 단계적인 4중이제설을 도입한 목적은 첫 단계를 듣고 깨닫는 상근기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중근기, 하근기의 중생까지 모두 가르침의 대상으로 포용하기 위함이다. 물론, 길장의 4중이제설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유연한 해석틀로서, 위 『중관론소』의 해석 외에도 여러 다양한 해석을 제공한다. 반면, 『대승현론』의 편찬자는 유독 자신이 제시한 한 가지 해석만 고집하여, 근기가 낮을

6) 『中觀論疏』(T42, 2:28b10-13), “問: 何故作此四重二諦耶? 答: 利根聞初, 即悟正道, 不須後二. 中根聞初不悟, 聞第二方得入道. 下根轉至第三, 始得領解也.”

수록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중관론소』의 설명 방식이 뒤의 단계로 갈수록 이제의 수준이 높아지는 『대승현론』의 위계적 이제 이해와 상충되기에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종합하면, 『중관론소』에 나온 길장의 답변은 『대승현론』 편찬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텍스트 분석에 따라, 『대승현론』을 제외한 『중관론소』와 『십이문론소』 등의 관련 구절이 길장의 4중이제설의 원형을 고찰하기 위한 기본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III.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 - 『중관론소』를 중심으로

1. 『중관론소』에 나타난 4중이제설

앞에서 제시한 『대승현론』과 『중관론소』의 문답 앞 부분에, 두 텍스트 모두 4중이제설에 관한 길장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대승현론』이 『중관론소』의 4중 이제 해석을 일부 차용한 결과다. 『중관론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또 “초장(初章)은 집착을 흔들어 의심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자성인 유와 무에 대한 집착을 흔들어 자성인 유와 무를 의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가(中假)는 자성에 대한 집착을 논파하고 의심을 풀어내는 것이니, 중도(中)는 자성에 대한 집착을 논파하는 것이고 가명(假)은 의심을 풀어내는 것으로, 유와 무를 가명으로 말했다고 밝혔으니, 어떻게 유와 무의 뜻(有無義)을 잃어버리겠는가!

둘째, 타 학파는 단지 유를 세제로 삼고 공을 진제로 삼지만, 지금 [삼론종에서는] 유와 공은 모두 세제고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님[非有空]은 진제라고 할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공과 유는 ‘둘[二]’이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非空非有]이 ‘둘이 아

님[不二]이다. [삼론중에서는] ‘둘’과 ‘둘이 아님’은 모두 세제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야말로 진제라고 한다.

넷째, 이 세 가지 이제는 모두 교문(敎門)인데, 이 세 문을 설법하여 세 가지가 아님[不二]을 깨닫게 하니, 무소의득(無所依得)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⁷⁾

『대승현론』은 위의 『중관론소』의 원문에서 제2중~제4중 이제 부분만을 차용했다. 그런데 『대승현론』이 위의 인용문을 차용한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승현론』 편찬자가 길장의 원의를 존중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편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승현론』은 제2중 이제를 설명하는 ‘二者, 他但以有爲世諦; 空爲眞諦.’ 구절을 차용하면서 ‘둘째[二者]’라는 표현을 제거한다. 이로써, 『대승현론』의 편찬자는 ‘타 학파는 단지 유를 세제로 삼고 공을 진제로 삼는다.’는 부분을 제1중 이제로 해석했거나, 아니면 4중 이제 가운데 제1중 이제를 생략해도 제2중 명제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전자는 타 학파의 공유이제를 삼론종의 유무 가명으로 혼동했다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후자는 4중이제설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시발처를 생략하고 곧이제2중부터 전개하는 서술상의 부자연스러움이 따른다.⁸⁾ 이러한 불완전한 인용은 편찬자의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길장의 4중이제설에 관한 편찬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중관론소』에 나타난 4중이제설은 초장(初章)과 중가(中假)에 관해서 설명한 다음 중도와 가명[中假]의 맥락 속에서 네 단계의 이제를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길장은 첫 단계의 진속 이제인 유무가 모두 가명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다시 말해, ‘가명인 유가 속제고 가명인 무가 진제’라는 것이 제1중 이제의 명제다. 그런데 여기서 타 학파의 이제 이해가 개입되는데, 그것은 바

7) 『中觀論疏』(T42, 2:28a27-6), “又云‘初章是動執生疑’, 謂動性有無之執, 令疑性有無. 中假即破性執釋疑: 中破性執, 假爲釋疑, 明假說有無, 何失有無義耶! 二者, 他但以有爲世諦; 空爲眞諦. 今明若有若空皆是世諦; 非空非有始名眞諦. 三者, 空有爲二, 非空非有爲不二, 二與不二皆是世諦; 非二非不二方名爲眞諦. 四者, 此三種二諦皆是敎門, 說此三門, 爲令悟不二, 無所依得, 始名爲理也.”

8) 『대승현론』에서는 뒤의 ‘셋째’와 ‘넷째’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둔 채 ‘둘째’만 생략했다.

로 ‘단지 유를 세제로 삼고 공을 진제로 삼는 것’이다.

두 이제 해석은 형식상 유사하다. 다만, ‘단지’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양자의 형식상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타 학파에서는 공유 이제를 고정된 자성으로 여겨서 유무 이제에 집착하지만, 삼론종에서 이제는 고정된 자성이 없기에 여러 다른 형식으로도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학파와 구별된다. 여기서 다시 길장이 “기존의 성실론사가 단지 1중 이제가 있는 것을 겨냥하기 위해, 지금 [삼론종에서] 이 네 단계의 생각을 밝힌다.”⁹⁾라고 한 『중관론소』의 타 구절을 대응시켜보면, 단지 유를 세제로 삼고 공을 진제로 삼는 ‘타 학파’는 ‘성실학파’임을 추론할 수 있다. 길장은 초기 3중이제설에서는 성실론사의 이제설이 두 단계를 갖춘 2중 이제라고 본 반면, 『중관론소』에서는 성실학파의 이제설을 1중 이제만 있다고 폄하한다.¹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삼론종에서 진속이제가 공유이제로 고정될 필요가 없으며 얼마든지 다양한 이제를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장은 삼론종이 성실론사의 단층적 이제와 달리, 제2중 ‘유와 공-세제’ 및 ‘비유비공(非有非空)-진제’, 제3중 ‘이(二)와 불이(不二)-세제’ 및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진제’, 제4중 ‘앞의 세 단계의 교문(教門)-세제’ 및 ‘무소의득(無所依得)의 이치-진제’를 펼쳐는 복합적인 이제설을 발전시켰다. 또한 이 4중의 이제가 통섭할 수 없는 가르침은 없다고 역설한다. 이렇게 이제가 중층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길장이 제4중 이제까지만 언급했어도 여러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4중이제설은 필요에 따라 제5중, 제6중으로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이 가정이 합당한 것인지는 다음 절에서 논의해보겠다.

2. 가르침의 중층적 확장성

우선 4중이제설에 관해 논하기 전에 그것의 원조가 되는 전통적 3중이제설부터 살펴보자. Liu, Ming-Wood(廖明活)는 삼론종의 3중이제설에 관해 논의하

9) 『中觀論疏』(T42, 2:28b24-25), “又爲對由來但有一重二諦, 故今明此四重意.”

10) 조윤경 2022, 27.

면서, “이론적으로는 대립이 해소되고 생성되는 것이 연속되는 이 부정의 변증법은 무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청자의 집착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면 멈추게 될 것이다.”¹¹⁾라고 지적했다.

그의 지적대로 3중이제설의 이론 구조는 열려 있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실험을 진행해볼 수 있다. 어떤 교화대상이 3중이제설에서 셋째 단계의 진제, 즉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라는 가르침에 집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삼론사는 교화대상의 잘못된 인식을 대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편을 제시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앞 단계들에서 적용했던 패턴대로 전 단계의 이제를 동시에 지양하는 상위 단계를 다시 설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셋째 단계의 진속이제인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제3중 세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제3중 진제)을 세제로 삼고, 양자를 동시에 부정하는 가르침, 즉 “둘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니고 불이가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非非二非非不二]”¹²⁾을 진제로 삼는 넷째 단계를 세워서 교화대상을 진리로 이끌 것이다. 나아가 만일 교화대상이 이마저도 집착하게 된다면, 다시 또 상위 단계에서 넷째 단계의 진속이제를 동시에 초월하는 진제를 설정하여 특정한 가르침을 고집하는 미혹에서 벗어나 중도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이처럼 3중이제설의 열린 형식은 이론적으로는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무한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무한한 전개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유실험 속에서도 출몰 가능성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삼론종에서는 제3중의 가르침, 특히 진제에 해당하는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은 특별한 지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을 진제로 포함하는 제3중이제 학설을 제시한 학파는

11) Liu 1993, 666.

12) 이 구절은 실제 길장의 동학인 혜균의 『대승사론현의기』에 출현한 적이 있다. 『大乘四論玄義記』(X46, 9:641b19-21).

삼론종 자신들 뿐이라고 자부했으며, 타 학파의 이제는 기껏해야 1종의 단층적 구조나 2종의 이중적 구조만 갖춘 불완전한 학설이라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길장을 비롯한 삼론사들은 대승경전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이 모두 3중 이제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3중이제설의 열린 형식이 무수한 중층적 이론을 전개해낼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과는 별개로, 삼론종에서 4중이제설을 고안하기 이전의 3중이제설에서 제3중 이제 너머 제4중, 제5중 등의 초월적 가르침을 무한히 전개할 필요성이 실제 있었는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한편, 삼론종에서 이제로 대표되는 가르침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중층적으로 확장하거나 또 축약시킬 수 있는 유연한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3. 제4중 이제의 관문

그렇다면 3중이제설을 발전시킨 형태인 4중이제설도 이론상 무한한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길장의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Lai는 4중이제설이 이론적으로 무한 진행될 수 있지만 길장이 네 단계로 마무리한 것은 승량이나 길장의 3중 중도를 초월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¹³⁾ 즉, 현실에서 4중 이상의 복잡한 이제를 전개할 필요는 없었던 반면, 이론적으로는 4중이제설이 무한히 펼쳐질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양웨이난은 4중이제설에서 각 단계는 전 단계의 부정이며, 제4중 이제의 가르침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문제는 제4중 이제도 비판받아야만 하는가다. 답변은 만약 그것을(실제 존재한다고) 오해하고 집착한다면, 반드시 똑같이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4중이 최고의 극한이 결코 아니며 만약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이전처럼 무한히 부정해야만 한다”¹⁴⁾고 말한다. 그는 길장의 4중이제설 가운데 각 단계

13) Lai 1980, 155.

14) 楊惠南 1989, 180.

는 전 단계의 부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4중이라고 해서 앞 단계와 다른 특별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상위 단계는 전 단계의 집착을 없애기 위한 임시적인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상위 단계의 이체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일 이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 단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이 집착을 부정하는 상위 단계의 이체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양훤이난은 4중이제설의 중층적 구조가 그 자체로 무한 부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오쿠노 미즈요시(奥野光賢)는 4중이제설에 대한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의 다음 설명을 인용하면서, 이 인용문이 길장의 의도에 잘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제4중의 이체(二諦)는 제3중의 이체를 합해서 속제로 하고, 비비불유(非非不有)·비비불공(非非不空)을 진제로 한다. 이 진제는 진여가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입장을 모두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집착이 있다면 다시 제5중, 제6중, 나아가 무한의 부정이 설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초중(初重)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¹⁵⁾

여기서 히라카와 아키라가 ‘초중(初重)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 한 것은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다만 그가 ‘비비불유(非非不有)·비비불공(非非不空)’¹⁶⁾을 제4중 진제로 간주한 것은, 이 구절이 앞의 세 단계의 이체 또는 제3중의 진제와 속제를 동시에 지양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표현이 아니지만, 사실 길장이 ‘무소의득(無所依得)의 이치’라고 한 마지막 진제를 다시 앞의 세 단계와 같은 층위의 ‘교문’으로 환원해버리는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나아가, 오쿠노 미즈요시는 “‘사중이제설’이라고

15) 平川彰 1981, 549. 奥野光賢 2015, 212에서 재인용.

16) 앞의 세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연역할 수 있는 제4중 진제의 언어표현은 ‘非二非不二非非二非非不二’다. 조윤경 2022, 15-16.

해도 그것은 형식상의 것이고, 중생의 집착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무거우면 무한의 부정이 계속된다는 것이다.”¹⁷⁾라고 설명한다. 그는 길장이 제시한 4중이제설은 형식상 네 단계로 표현되었을 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중생의 집착은 무한하고, 이 무한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말하면, 4중이제설은 제3중 이제 다음에 앞의 세 단계와 똑같은 형식의 가르침을 한 층 더 반복하여 쌓아 올린 이제설이 아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교문(敎門)과 차원을 달리하는 ‘이치’를 제4중 이제의 진제로 포섭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마지막 층위의 이제는 앞의 제1중 이제부터 제3중 이제까지 나타났던 점진적인 단계성을 완전히 초월한 궁극적 깨달음을 이제 안으로 포섭하고 있다. 말하자면, 앞의 세 단계의 이제는 이제 너머에 있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르침이지만, 마지막 단계의 궁극적 진리는 깨달음 그 자체의 다름 아니다.

또한, 삼론중에서는 불보살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가르침은 자유자재로 펼쳐진다고 본다. 특히, 3중이제설이나 4중이제설과 같은 이제설은 ‘단복(單複)’의 원리를 통해 단층적 가르침으로부터 중층적 가르침을 확장시킨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의 원리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단순한 한 구절로부터 무궁무진한 논리를 전개시킬 수도 있고 복잡한 논리구조를 다시 단순한 한 구절로 함축시킬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이치는 가르침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세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언어를 초월한 것, 세 단계의 가르침이 본래 ‘세 가지가 아님[不三]’, ‘한 치도 의지하거나 얻지 않음[無所依得]’이다. 말하자면, ‘다양한 이치’는 본래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열린 형식인 3중이제설이 중층적 확장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4중이제설은 제4중 이제에 의해 닫힌 구조로서 완결된다.

앞 절에서 언급한 ‘둘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니고 불이가

17) 奥野光賢 2015, 212.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非非二非非不二]’과 같은 제3증을 초월한 가르침을 4중 이제설 가운데 위치시켜보면 이 사실은 더욱 명백해진다. 『대승사론현의기』에서 유마힐의 침묵에 관해 “유마힐은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으로 인해 ‘둘도 아니고 불이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니고 불이가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非非二非非不二]’에 들어간다.”¹⁸⁾고 기술하고 있다. 이 유마힐의 침묵을 대변하는 가르침은 제3중 이제를 세제로 삼아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초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3중 다음에 자리를 잡아야 하고, 또한 어디까지나 가르침으로서 제4중 진제인 ‘무소의득(無所依得)의 이치’보다는 하위 단계에 놓여야 하므로 소위 ‘제3.5중의 진제’가 된다. 그 결과 제4중 세제는 ‘세 가지 교문’에서 ‘네 가지 교문’으로 치환될 것이다. 이처럼 제3중보다 복합적 가르침을 계속 전개해보아도, 결과적으로 확장 가능한 제3중 이제와 닫힌 구조를 완결하는 제4중 이제 사이에 또 다른 단계가 삽입될 뿐,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를 열린 구조로 전환하지는 못한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제3중과 제4중 사이에 무수한 단계를 가정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의 『대승사론현의기』의 표현을 포함하여 삼론종 문헌에서 ‘非非二非非不二’이 몇 차례 등장할 뿐, 이보다 상위 단계의 가르침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길장의 4중이제설에서 제4증을 초월하는 상위 단계를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길장은 넷째 단계의 진제를 언어와 사유가 끊어져 한 치도 의지하거나 얻을 것 없는 구경의 이치라고 명시하였는데, 그러한 이치에 대해 교화대상이 다시 집착하고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 상위 단계의 이제를 상정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마지막 넷째 단계에서 말한 ‘구경의 이치’는 3중 이제에서 차례로 제시했던 ‘무(혹은 공)’, ‘둘이 아님[不二]’,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의 깊이를 단번에 훌쩍 뛰어넘어버린다.

궁극적 깨달음을 향하는 가르침에 지나지 않았던 앞의 세 단계 이제와 달리, 제4중 진제는 언어와 사유의 속성을 지닌 가르침을 초월한 궁극적 깨달음 그

18) 『大乘四論玄義記』(X46, 9:641b10-11), “淨名因非二非不二, 入非非二非非不二也.”

자체를 직설(直說)하며, 이 제4중 이제로 인해 길장의 4중이제설은 완결된 닫힌 구조가 된다.

4. 제5중 이제는 가능한가?

닫힌 구조를 4중이제설에서 마지막 제4중을 초월한 또 다른 단계를 연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만일 제5중 이제를 상정한다면, 그 순간 제4중 진제인 ‘궁극적 이치’가 실은 ‘궁극적 이치’가 아니게 되는 자기모순이 발생해버린다. 제4중 진제에는 궁극적 이치에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소의득(無所依得)’, ‘언망려절(言忘慮絕)’처럼 언어의 분별이 작동을 멈추고 가르침에도 더는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기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4중 진제를 규정하는 특별한 단서들이 또 다음 단계로 전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길장이 직접 4중이제설에 관해 설명한 부분은 아니지만, 4중 이제의 형식을 응용하여 펼친 다른 주제의 담론들 가운데 드물게 제4중의 논변을 넘어 그다음 단계를 전개한 예가 있어서 소개해보겠다.

스승은 다시 점진적인 버림으로 다섯 가지 희론을 설명하셨다.

첫째, 부처님은 계문(誡門)과 권문(勸門) 두 가지가 있으니, 갖가지 악을 짓지 말라는 것이 계문(誡門)이고, 갖가지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이 권문(勸門)이다. 악은 이치를 어그러뜨려 근시안에 매몰되게 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기 때문에 ‘희론’이라고 한다. 선은 이치에 부합하여 맑게 올라가는 것이니, 타인을 이롭게 하여 즐거운 과보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희론이 아니다.

둘째, 선에는 두 가지 문이 있으니, 유소득(有所得)의 선은 움직이거나 나갈 수 없으므로 ‘희론’이라고 하고, 무소득(無所得)의 선은 움직이거나 나갈 수 있으므로 희론이 아니다.

셋째, 득(得)과 무득(無得)의 둘을 ‘희론’이라고 한다. 마치 [『열반경』에서] “명(明)과 무명(無明)을 어리석은 자는 둘이라고 여긴다”라고 한 것과

『대품경』에서 “둘이 있으면 불도(佛道)도 없고 불과(佛果)도 없다”라고 한 것과 같다. 만약 유득(有得)과 무득(無得)이 평등하여 둘이 아니면 ‘희론이 아니다[不戲論]’고 한다. 『열반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의 본성에 둘이 없음을 분명하게 통달하였으니, 둘이 없는 본성이 바로 실성(實性)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넷째, 둘과 둘이 아님은 양변이니 모두 희론이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닌 중도면 희론이 없다[無戲論]고 설명했고, 그다음으로 둘과 둘이 아님 및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은 모두 이름과 모습[名相]이니 모두 희론이고, 언망려절(言亡慮絕)이면 희론이 아니다[非戲論]라고 설명했다.

다섯째, 만약 희론이 있거나 희론이 아님이 있으면 모두 희론이고, 만약 희론도 없고 희론이 아님도 없으면 비로소 희론이 아니다[不戲論].¹⁹⁾

『중관론소』에서 길장은 스승의 다섯 가지 희론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앞에서 논의한 4중 이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그동안 4중이제설은 다른 스승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길장의 독창적 이론이라는 관점이 우세했으나, 동첸(董群)은 길장의 4중이제설이 범랑에서 유래한다고 명시한 적이 있다.²⁰⁾ 만약 위의 인용문에서 길장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4중이제설의 창시자가 길장이 아닐 수 있다. 설령 길장이 4중이제설을 창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수한 그의 창조적 아이디어라기보다 그의 스승 범랑이 설법했던 논리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중층적 이제설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앞의 다섯 가지 희론과 4중 이제를 각각 대응시켜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19) 『中觀論疏』(T42, 1:12c1-15), “師又約漸捨義, 明五種戲論: 一者, 佛有誡勸二門: 諸惡莫作, 名為誡門; 諸善奉行, 名為勸門. 惡有乖理府墜, 損他感苦, 故名“戲論”. 善是符理清昇, 利他招樂, 故非戲論. 二者, 善有二門: 有所得善, 不動不出, 名為“戲論”; 無所得善, 能動能出, 故非戲論. 三者, 得無得二, 名為“戲論”. 如云“明與無明, 愚者謂二” “諸有二者, 無道無果”. 若有得無得平等不二者, 名“不戲論”. “智者了達, 其性無二. 無二之性, 即是實性.” 第四, 明二與不二二邊, 並是戲論, 若能非二不二中道, 則無戲論; 次, 二’ 不二’ 非二非不二, 並是名相, 皆是戲論; 言亡慮絕, 則非戲論. 第五, 若有戲論若有不戲論, 並是戲論; 若無戲論無不戲論, 方是不戲論也.”

20) 董群 2008, 267.

〈표 1〉 다섯 가지 희론과 4중 이제 비교

다섯 가지 희론	4중 이제
(1) 악 ➡ 희론 선 ➡ 희론 아님	
(2) 유소득(有所得) ➡ 희론 무소득(無所得) ➡ 희론 아님	① 유 ➡ 세계 공 ➡ 진제
(3) 돌 ➡ 희론 돌이 아님 ➡ 희론 아님	② 돌 ➡ 세계 돌이 아님 ➡ 진제
(4) 돌과 돌이 아님 ➡ 희론 돌도 아니고 돌이 아님도 아님 ➡ 희론 아님	③ 돌과 돌이 아님 ➡ 세계 돌도 아니고 돌이 아님도 아님 ➡ 진제
돌과 돌이 아님, 돌도 아니고 돌이 아님 ➡ 희론 언망려절(言亡慮絕) ➡ 희론 아님	④ 돌과 돌이 아님, 돌도 아니고 돌이 아님 ➡ 세계 언망려절 ➡ 진제
(5) 희론이 있거나 희론이 아님이 있음 ➡ 희론 희론도 없고 희론이 아님도 없음 ➡ 희론 아님	

위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희론 가운데 둘째, 셋째, 넷째 단계의 희론과 희론이 아님에 관한 논변에 4중 이제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첫째와 다섯째 단계의 논변은 4중 이제의 논리구조를 벗어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넷째 단계에서는 제3중과 제4중의 논리가 함께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다섯 가지 희론은 4중 이제를 적용하여 점진적인 단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섯 단계에서 다루는 스펙트럼이 4중 이제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넷째 단계에서 언망려절(言亡慮絕)의 중도실상을 가리킨 다음에 다시 나오는 다섯째 단계다. 이 다섯째는 앞의 네 단계를 통해 실상은 분명하게 설명했지만 무엇이 희론이고 무엇이 희론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설정한 단계다. 즉, 이 단계에서는 앞의 모든 단계를 총괄하여 희론과 희론이 아님의 분별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희론이고, 희론과 희론이 아님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비로소 희론이 아님에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다섯째 단계에서는 희론을 배제하고 희론이 아님을 지향하는 앞 단계의 논리적 형식을 반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유의 방향을 바꾸어 희론과 희론 아님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논법

을 구사한다.

다섯 가지 희론에서 ‘희론과 희론이 아님’은 비록 4중 이제의 ‘세제 및 진제’와 언어 표현은 다르지만, 점진적인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상통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전개되는 방식을 비교해서, 길장의 사상적 지향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중관론소』에서는 4중이제설과 관련하여 “만약 이제를 세제로 삼고 둘이 아님을 제일의제로 삼는다면, 세제는 가르침이고 제일의제는 이치가 된다.”²¹⁾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세제와 진제를 경우에 따라서 가르침과 이치의 구도로 치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희론에 관해 논의한 다섯째 단계의 논리를 4중이제설에 다시 적용해보면, 다음의 두 가지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1. 만약 세제가 있거나 진제가 있으면 모두 세제고, 만약 세제도 없고 진제도 없으면 비로소 진제다.
2. 만약 가르침이 있거나 이치가 있으면 모두 가르침이고, 만약 가르침도 없고 이치도 없으면 비로소 이치다.

위의 두 명제는 앞 단계를 부정하는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던 3중 이제의 논리를 반복하거나 제4중의 닫힌 구조를 뚫고 더 초월적 진리를 향해 전진하게끔 하는 형식이 아니다. 이 명제는 제4중 이제에서 도달한 중도실상의 이치를 기점으로 다시 앞 단계의 이제 가르침이 지닌 가치를 재조명한다. 다시 말해, 이 명제들은 앞 단계의 가르침과 이치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앞에서 점진적으로 폐기되었던 세제가 실은 진제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두 명제 가운데 어느 하나를 4중 이제 이후에 제5중 이제로 덧붙인다고 가정해보아도, 그것은 각 단계의 위계성을 파기하고 진제와 세제, 이치와 가르침 사이의 벽을 허물 뿐,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

21) 『中觀論疏』(T42, 2:28b7-10), “問: 若爾, 與理教何異? 答: 自有二諦為教, 不二為理. 若以二為世諦, 不二為第一義, 世諦是教, 第一義為理, 皆是轉側適緣無所妨也.”

지 않는다. 이 덧붙여진 명제는 이제가 전개되는 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오히려 4중이제설이 무한부정으로 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궁극적 이치를 이제 가르침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5. 무한소급(Infinite Regress)

전 단계의 가르침을 무한히 부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어떤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궁극적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우스(悟實) 스님은 길장의 4중이제설이 닫힌 구조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중층적으로 부정하는 과정은 무한히 진행될 수는 없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무한소급의 난제에 빠지게 된다. 길장 대사는 제4중 이제에서 앞의 세 단계의 이제를 전복시키고 진리를 ‘언망려절(言忘慮絶)’의 둘이 아님[不二]으로 귀결시켰는데, 다시 말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세제고 오직 ‘언망려절(言忘慮絶)’만 진제라는 것을 통해 무한소급의 난제를 해소했다.²²⁾

길장이 3중이제설의 열린 구조를 4중이제설의 닫힌 구조로 전환시키면서 마지막에 ‘궁극적 이치인 이제’를 제시함에 따라 그의 중층적 이제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그에 의하면, 앞의 3중 이제를 설법한 목적은 다름 아니라 세 가지 교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문이 아닌[不三]’ 이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²³⁾ 길장은 전통적인 3중이제설에서 각 단계의 이제 가르침이 설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교화대상이 초월적 이치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한 번의 가르침을 통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중생도 있는데, 이들도 모두 구제하려는 대승의 자비심이 제2, 제3의 가르침을 제시하게 했다.

그렇지만 길장은 이러한 중층적 이제설을 무한히 전개시키지 않는다. 왜냐

22) 悟實法師 2014, 287-288.

23) 각주 7번에 인용한 『中觀論疏』 인용문 마지막 부분 참조.

하면 이제설이 무한소급하면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혹자가 3중 이제의 중층적 구조에 집착하여 ‘번뇌를 끊임없이 떨어내는’ 점진적 수행에 얽매이게 되면, 삼론중에서 중층적 이제설을 설정했던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진다. 또한 수행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특정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불완전한 것이기에 궁극적 이치는 가르침 밖에 있다고 믿고, 깨달음을 다음 단계, 혹은 그다음 단계로 미룬다면 궁극적인 해탈은 요원해진다. 길장은 만년에 3중 이제보다 4중 이제를 즐겨 사용했다. 이는 그가 궁극적 이치를 깨닫는 이제(가르침)의 목적이 ‘점진적 버림’의 구조 속에서 오페되는 것을 염려하고, 가르침(제4중 세제)과 이치(제4중 진제)를 직접 연결한 제4중 이제의 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길장은 전통적 3중이제설을 버리고 새로운 4중이제설로 전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3중이제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보강한 닫힌 구조를 즐겨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길장은 3중 이제와 관련하여, 대승경전에 나온 불보살의 가르침은 3중 이제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으며, 중생은 이러한 불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반드시 궁극적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의 형식으로 보면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 모두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을 마지막으로 삼고 있다. 다만 4중이제설에서 최종 단계는 3중이제설에서 각 단계 이제의 지향점이며 언어를 초월한 ‘이치’를 가르침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따라서 3중이제설의 열린 구조에서조차 중층적 논리의 무한한 전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한부정이 3중 이제의 전통적 함의와 3중 이제를 통해 삼론사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IV. 4중이제설과 이치의 관계 - 『십이문론소』를 중심으로

결국 ‘4중이제설은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치

와 가르침 사이의 관계로 귀결된다. 마지막 제4중 진제의 자리에 ‘궁극적 이치’가 놓임으로써 4중이제설이 완결된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자가 4중이제설을 무한히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면에는 삼론종의 이제는 이치나 경계와 관련이 없는 ‘언어로 표현된 교설’이라는 ‘약교이제설(約教二諦說)’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약교이제설’의 관점에서는 진제도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된 가르침일 뿐이어야 하므로, 제4중 진제가 ‘무소의득(無所依得)’, ‘언망려절(言忘慮絕)’의 이치라는 것과 모순이 발생한다. 양훤이난은 『중관론소』의 제4중 진제인 ‘이치[理]’를 ‘교리(教理)’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²⁴⁾ ‘교리’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부정하고 상층의 논리를 세울 수 있으며, 이를 무한 반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가르침이다.[二諦是教]’라는 삼론종의 명제는 이제가 이치로 통하는 가르침이기에 이치와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지, ‘약교이제설’에서 주장하듯 이제가 언어로 구성된 가르침임을 강조하려는 것도 아니며, 『대승현론』의 편찬자가 제시하듯 “이제는 교문일 뿐, 경계나 이치와 관련이 없다.[二諦唯是教門, 不關境理.]”²⁵⁾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이치와 가르침의 상관성[理教義] 속에서 4중이제설을 바라보면 제4중 진제가 ‘이치’라고 말해도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삼론종의 모든 가르침은 ‘이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십이문론소』에도 4중이제설이 등장하는데, 앞에서 인용한 『중관론소』와 맥락과 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 제3중 이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중,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이 모두 인연인데, 둘이 아니기에 둘이고 둘이기에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과 둘이 아님이 모두 인연인 것을 세제라고 한다. ‘이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둘이 아님

24) 楊惠南 1989, 187.

25) 『大乘玄論』(T45, 1:15a14-17), “二諦者, 蓋是言教之通詮, 相待之假稱, 虛寂之妙實, 窮中道之極號, 明如來常依二諦說法, 一者, 世諦, 二者, 第一義諦. 故二諦唯是教門, 不關境理.”

으로 인해 둘이 있으니, 둘이 자성이 없는 것이 ‘非二’이고, 둘로 인해 둘이 아님이 있으니, 둘이 자성이 없는 것도 없으므로 ‘非不二’다.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不二]’을 진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의 문을 따라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不二]’의 **이치**로 들어간다.²⁶⁾

『십이문론소』의 4중이제설에 관해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지만, 여기서는 제3중 진제로 제시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不二]’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인용문에서는 세제인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의 문을 따라서 진제인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不二]’의 ‘이치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관론소』에서 3중 이제의 ‘가르침’에 제4중 진제인 ‘이치’를 보강한 4중이제설의 구조와 얼핏 보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 희론에 관한 『중관론소』의 논변에서 도출했던 “만약 가르침이 있거나 이치가 있으면 모두 가르침이고, 만약 가르침도 없고 이치도 없으면 비로소 이치다.”라는 명제를 적용해보면 이 부분도 해석할 수 있다. 앞의 명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면 가르침과 이제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4중이제설의 각 단계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이제는 모두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기에 제3중 진제인 ‘非二不二’의 ‘이치로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4중이제설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원리로 제2중 진제인 ‘不二’의 ‘이치로 들어간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십이문론소』에서는 가르침을 ‘문’이라고 이름하는[教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²⁷⁾ 그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이 그 자체로 ‘이치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치가 가르침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치도 ‘문’이 된다[理門].²⁸⁾ 그렇다면 가르침과 이치는 서로 자유롭게 통하는 문이며 그

26) 『十二門論疏』(T42, 1:183c24-184a1), “第三重, 二不二, 皆是因緣。由不二故二, 由二故不二。故二不二, 並是因緣, 名為世諦。是則無自性者, 明由不二有二, 二無自性, 是即非二, 由二有不二, 無二無自性, 故非不二。非二不二, 名為真諦。故從二不二門, 入非二不二理。”

27) 『十二門論疏』(T42, 1:175a24-27), “教稱為門, 亦具三義: 一者, 無礙之教, 當體虛通, 故名為門。二, 教能通理, 教為理門。三, 因教發觀, 則境為智門。”

런 의미에서 ‘약리이제설’과 ‘약교이제설’처럼 이치와 가르침의 경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제1중~제3중 이제의 교문도 언제나 이치로 향하고 있으며, 『중관론소』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중도와 가명의 상관성[中假] 속에서 설법된 가명이기 때문이다.

『십이문론소』에서 제4중 진제를 언어와 사고가 끊어진 경지[言斷慮窮]로 보고 있기에, 『중관론소』와 마찬가지로 닫힌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끊어지지 않은 제3중에서 ‘이치로 들어간다.’고 한 것을 통해, 다른 단계에서도 ‘이제가 인연의 관계로서 자성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다름 아닌 이치를 깨닫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중에서는 ‘인연공(因緣空)’의 이치, 제2중에서는 ‘不二’의 이치, 제3중에서는 ‘非二不二’의 이치, 제4중에서는 ‘無二不二亦無非二不二’의 이치로 통하는 문을 열었으며, 각 단계가 설정한 문의 이름은 다르지만 깨달음의 시각에서는 결국 같은 이치의 문이다.

『중관론소』와 『십이문론소』에 출현하는 4중이제설은 본질적으로 3중이제설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3중이제설보다 이치와 깨달음의 시각에서 중층적 가르침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유마힐의 침묵에서처럼, 언어적 표현은 이제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며, 가르침의 요건은 이치와의 상관성 뿐이다. 따라서 길장은 4중이제설에서 이제 가르침과 이치가 서로 통하는 관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 중층적 구조물을 완결지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길장의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보았다. 4중이제설은 제3중 이제 위에 앞의 세 단계와 동일한 논법의 가르침을 한층 더 반복하여 쌓아 올린 이제설이 아니라, 교문(敎門)이 아닌 이치를 제4중

28) 『十二門論疏』(T42, 1:175a22-24), “理為門者, 凡有三義: 一, 至理虛通, 當體稱門. 二, 理能通生觀智, 則境為智門. 三, 理能通教, 則體為用門.”

이제의 진제로 포섭한 이론이다. 따라서 마지막 층위의 이제는 앞의 제1중 이
제부터 제3중 이제에서 보이는 점진적인 단계성을 완전히 초월한 궁극적 깨달
음을 직설(直說)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3중이제설이 열린 형식이었다면
길장의 『중관론소』, 『십이문론소』에 나타난 4중이제설은 닫힌 구조다.

‘4중이제설이 무한히 전개될 수 있다.’는 통설은 이제의 가르침이 이치와 동
떨어져 있기에 무한한 중층적 구조로 메워나가야 한다는 ‘약교이제설’의 관점
이 투영되어 있으며, 그것의 바탕에는 이제에 대한 『대승현론』의 잘못된 해석
도 한몫하고 있다. 『대승현론』은 4중이제설의 각 단계가 각각 길장 당시 타 학
파(비담사, 성실사, 지론사 그리고 섭론사)의 이제 해석을 대치하기 위해 네 단
계를 설정했다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만약 이처럼 4중이제설이 타 학
파의 학설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초월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학파의 이제설 출현에 의해 다시 상위 단계가 형성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한부정이 가능한 열린 구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승현론』의 해석은 길장의 의도와 무관한 해석임이 판명되었으
므로, 『대승현론』의 시각에서 탈피해 새롭게 4중이제설에 접근해야 한다.

4중이제설은 전통적인 3중이제설의 ‘점진적 단계’가 상위 단계의 ‘부정’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언어나 사고를 초
월한 이치를 포함한 최종 단계를 설정하여 닫힌 구조로 전환한다. 이로써 깨달
음과 무관하게 중층적 가르침이 무한히 전개되는 무한소급을 피하고, ‘모든
가르침이 이치와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닌다.’는 삼론종의 핵심 사상을 적극적
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깨달음을 직지(直指)하는 제4중 이제는 비단 마지막 단
계에서만 이치로 통하는 문을 연 것이 아니며, 앞의 3중 이제 또한 깨달음의 시
각에서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4중이제설의 각 단계는 모두 깨달음으로 통하
는 완전하고도 평등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4중이제설의 모든 단계적 가르침이 평등하다는 통찰은, 전통적인 3
중이제설에서도 매 단계가 부분적 진리를 나타내는 불완전한 가르침이 아니
라 바로 궁극적 깨달음을 실현하는 문(門)이었음을 환기시킨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T 大正新修大藏經 [Revised Buddhist Canon compiled during the Taishō reign period]. Eds. TAKAKUSU, Junjirō (高楠順次郎) and Kaikyoku WATANABE (渡邊海旭) et. al., 100 vols., Tokyo: Daizōkyōkai, 1924-1935.
- X 卍新纂大日本續藏經 [Supplement Buddhist Canon reedited]. Eds. KAWAMURA, Koshō (河村孝照) et al., 90 vols., Tokyo: 國書刊行會 (Kokushokankōkai), 1967-1989.
- 『中觀論疏』 T1824
- 『十二門論疏』 T1825
- 『大乘玄論』 T1853
- 『大乘四論玄義記』 X0784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CAI, Xiaojing (蔡晓菁). 2021. 「《大乘玄論》作者辨」 [“An Argument for the Author of the *Dacheng Xuanlun*”]. 『东亚佛学评论』 (*Review of East Asian Buddhist Studies*), 2021 1st, 41-71.
- CHO, Yoon kyung (조운경). 2014. 「『大乘玄論』 길장 찬술설에 대한 재고찰 - 「二諦義」를 중심으로」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Jizang Compiled *Dachengxuanlun*: Focused on *Erduyi*, *Dachengxuanlun* Vol. 1”]. 『선문화연구』 (*Studies of Seon Culture*), vol. 16, 321-360.
- _____. 2022. 「4중이제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길장은 그 당시 다른 학파들을 겨냥하여 4중이제설을 전개했는가? -」 [“A Critical Examination of a Prominent Theory about the Four-level Two Truths: did Jizang develop his four-level two truths theory in action to other schools of thought in his time?”].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Studies*), vol. 31, 9-36.
- DONG, Qun (董群). 2008. 『中國三論宗通史』 [*The General History of the Sanlun School in China*], Najing: 鳳凰出版社 (Phoenix Press).

- LAI, Whalen W. 1980. "Further Development of the Two Truths Theory in China."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30, no. 2, 139-161.
- LIU, Ming-Wood. 1993. "A Chinese Madhyamaka Theory of Truth: The Case of Chi-Tsang."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43, no. 4. 649-673.
- SAITO, Akina (齋藤明), GOSHIMA, Kiyotaka (五島清隆), KISHINE, Toshiyuki (岸根敏幸), KEIRA, Ryusei (計良龍成), AKAHANE, Ritsu (赤羽律), MIYAZAKI, Izumi (宮崎泉), YOSHIMIZU, Chizuko (吉水千鶴子), OKUNO, Mitsuyoshi (奥野光賢). NAM, Suyong tr. (남수영 역). 2015. 『공과 중관』 [*Emptiness and Mādhyamaka*], Seoul: CIR.
- Ven. WUSHI (悟實法師). 2014. 『三論宗與中國佛學』 [*The Sanlun School and Chinese Buddhist Studies*], Beijing: 宗教文化出版社 (Religious Culture Publishing House).
- YANG, Huinan (楊惠南). 1989. 『吉藏』 (*Jizang*), Taipei: 東大圖書公司 (Dongda Book Company).

Does the Theory of the Four Levels of the Two Truths Go on Infinitely?

CHO, Yoon Kyung
Assistant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Four Levels of the Two Truths (四重二諦) is one of Jizang's (吉藏) most prominent doctrines. A problem has arisen, however, since most studies conducted were based on the relevant explanations within *Dacheng xuanlun* (大乘玄論), which is not Jizang's own work. Therefore, it is crucial to isolate the perspectives of *Dacheng xuanlun* in order to critically review the theoretical structure and ideas of the original theory.

A misunderstanding within this doctrine is the interpretation that the doctrine can be developed infinitely. This is based on the idea that all the levels of the ultimate truth, even that of the fourth level, can be denied on a succeeding level, thus making it an infinite regress. Therefor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is theory is an open structure that extends infinitely.

The fourth level is unlike the previous three. The mode of teaching in these three steps is not repeated in the fourth, given that it is a gateway to the principle (理門) rather than a gateway to the teachings. In other words, while the first through third levels are a gradual progression, the final one is a streamlined path toward ultimate enlightenment. Since the traditional three-level theory could be interpreted as an open and infinite framework, and the discourse within *Dacheng xuanlun* also contributes to the impression of infinite negation, many scholars have applied the concept of infinity to the fourth level as well.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of the discourses in *Zhongguanlun shu* (中觀論疏) and *Shiermenlun shu* (十二門論疏), the doctrine is more accurately described as a closed framework. By converting the open structure to a closed one, Jizang was able to clarify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two truths were incomplete teachings. In conclusion, he avoided the fallacy of infinite regress—that is, the idea that enlightenment cannot be reached by the two truths on any level.

Keywords

Four Levels of the Two Truths (四重二諦), Jizang (吉藏), Infinite Regress, Teachings (教), Principle (理), *Dacheng xuanlun* (大乘玄論), *Zhongguanlun shu* (中觀論疏), *Shiermenlun shu* (十二門論疏)

2022년 08월 11일 투고
2022년 09월 13일 심사완료
2022년 09월 20일 게재확정